

## 2012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제도 실태조사 연구

차 성 란(대전대 교수)

본 연구는 2012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중 96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국내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의 가족친화수준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 자료는 2012년도 가족친화인증심사를 위해 기업에서 가족친화인증심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인증심사 결과인 평점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최고경영층의 가족친화에 관한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정도는 우수하다는 비율이 86.5%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기본요소 영역 중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영역에서는 건강검진, 체력단련실 지원이 많았으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영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 출산축하금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영역에서는 중고생 및 대학생 학자보조금 지원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특성화요소 영역 중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인증 심사 96개 기업 중 20개 기업만이 인증신청을 하는 저조한 실행영역이었다.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시차출퇴근제였으며, 공공기관은 시간제근무, 중소기업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역시 실행수준이 낮은 영역이었으며, 공공기관은 모바일 오피스와 스마트워크센터, 대기업은 모바일오피스를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가족간호 및 가족건강지원에서는 운영중인 프로그램수가 평균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였으며, 공공기관은 배우자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및 할인, 가족간호휴가 지원, 대기업은 진료비지원 및 할인과 배우자건강검진을 많이 도입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은 진료비지원 및 할인을 하고 있으나 비율이 그리 높지 못했다. 가족관계증진 및 여가생활지원에서도 운영중인 프로그램수가 평균적으로 많았으며, 프로그램 유형도 매우 다양했다. 일반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휴양소, 동호회지원, 기념일 축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는 가족사랑의날과 선택적 복지를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장려 및 경조사 지원에서는 경조관련 휴가지원, 근로자본인이나 가족 결혼 축하 프로그램, 가족조 의금, 장례용품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가족친화사회공헌에서는 소외계층가정, 난치병어린이, 공무원유가족 등을 위한 모금활동,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했으며 프로그램 참여도는 대기업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조성은 관련 제도 도입이나 가족친화 문화조성에 있어 공공기관이 앞장서 주도해 나가고 있다. 둘째,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가족친화제도 중 근로자의 가족친화적인 가족문화 조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셋째, 대기업은 탄력적 근무시간과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유연성과 같은 일상적 근무환경과 관련된 가족친화환경수준이 낮았다. 넷째, 중소기업은 가족친화환경조성을 위해 금전적 비용없이 운영 가능한 제도를 선호하였다.